

도심속 회색 콘크리트가 바뀐다

포천시, 도심의 회색콘크리트 슈퍼그래픽 이용 도시미관 향상

포천시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콘크리트 옹벽과 지중화사업에 따라 설치된 콘크리트박스에 색채를 적용하고, 이를 민간분야에도 적극 권장한다는 내용의 도시미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포천시가 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들을 조사한 결과 ▶주요 도로변 옹벽 63개소와 교량 10개소, 방호벽 3개소, 울타리 1개소 ▶주요 하천변 옹벽 3개소 ▶콘크리트박스 76개 등으로 집계됐다.

포천시는 이 같은 시설들에 대해 슈퍼그래픽, 자연재료를 이용한 마감, 도자기 모자이크, 입체형 광고 조형물, 스틸 장식품 등, 미적각각을 고려한 마감처리로 도시미관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추후 설치되는 각종 도시기반 시설의 경우, 공사비에 미관향상을 위한 비용을 계상해 구조물이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설치될 수 있도록 했으며, 민간부분의 경우에도 가능한 옹벽공사를 제한하

고 부득이 옹벽으로 처리할 경우에도 도시미관을 고려해 치장할 것을 적극 권유하기로 했다.

포천시는 우선 1억 2천만 원을 추정 예산으로 편성해 7월 이전에 14개 읍면동별 도시미관시설 각 1개소와 송우리 콘크리트박스에 대한 미관 개선 작업을 벌이게 되며, 추후 2억 7천 5백만 원의 추경예산을 상정할 계획이다.

시는 시청 모든 부서와 각 읍면동, 기타 유관기관에 대해, 5월부터 발주 및 시공되는 시설에 대해 미관관련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했으며,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인허가 시 도시미관 저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통신타워의 경우, 미관을 갖춘 후 설치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박운국 포천시장도 지난 1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앞으로 옹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처음부터 도시미관을 고려한 설계로 아름답게 시공할 것을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1천만 수도권 주민



도시미관을 고려해 포천시가 추진할 미래형 옹벽.

들의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포천시가 '문화와 관광의 도시 포천'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으나 회색의 콘크리트 교량과 옹벽, 방호벽, 담장 등이 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이 같은 도시미관 개

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보다 아름다운 가로환경이 조성되고 관광 포천의 이미지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국민銀 중국어 지원 ATM

국민은행 송우지점 서비스 시작



중국어로 서비스되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이 설치된 국민은행 송우지점.

중국어로 서비스되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다.

국민은행은 국내에 체류중인 중국인(약 20만명)을 위해 ATM 중국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7개 지점 35대 ATM으로 본점 영업부, 이태원, 독산남, 구로남, 서업창, 포천 송우, 부천 도당동 등이다. 이곳 지점을 찾은 중국

인이나 중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은 중국어로 현금 입·출금, 통장조회, 통장이체, 신용카드 서비스 등을 안내받게 된다.

송우철 국민은행 외환업무팀 차장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42만명 중 20만 여 명이 중국인이고 이들의 거래량이 많아 중국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상공회의소 1주년 기념식

21일 포천여성회관에서 개최

포천상공회의소(회장 김인만)가 설립된지 1주년을 맞아 오는 21일 오전 11시 포천여성회관 3층 청성홀에서 기념식을 갖기로 했다.

이번 기념식은 설립당시 초창기에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데 서로 힘이 된 회원사는 물론 관내 기관·단체장들을 초청해 기념식

을 갖는다. 개최선언,내빈소개,감사패 수여, 우수업체 표창, 기념사,축사 순으로 진행될 기념식과 2부 행사로 기념케이크단, 오찬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우리銀, 中企에 연 5% 대출

'중소기업 석세스론' 6월말까지 특별판매

우리은행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 금리를 최저 연 5.03%까지 낮춘 '중소기업 석세스론'을 오는 6월 말까지 특별 판매한다.

이 상품은 일반 중소기업은 물론 기존에 특별관리 대상이었던 음식·부동산·숙박·목욕탕 분야 사업자까지 대상이 되며 운영자금은 3년, 시설자금은 10년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변동금리, 고정금리 등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타 은행 우량 고객이 대출을 원할 때는 설정비, 감점료 등 거래 이전에 따른 비용을 깎아준다.

고객 기여도에 따라 컨설팅, 자금관리서비스, 종업원 연수 등 혜택도 줄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업종과 고객을 세분해 대출 상품을 더욱 활성화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다른 사람이 하던 사업을 인수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금융기관에 다니다 정년퇴직을 한 김재산 씨는,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임대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상가를 6억원 (건물가액 10억원 + 부가가치세 1억원 + 토지가액 3억원 - 보증금 8억원)에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부가가치세 1억원은 환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5억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약을 하러니 잔금 일차 8억원을 모두 지불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1억원은 나중에 세무서에서 환급 받으라고 한다.

김재산 씨에게는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다. 무슨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이는 양도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양수자가 환급받게 되어 과세실익이 없음에도 양도 당시 사

업자에게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지우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단,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양수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김재산 씨가 건물을 매입한 후에도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임차인의 변경 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한다면 이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김재산 씨는 5억원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처럼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만큼 양도가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거래를 원활히 성사시킬 수 있고, 양수자는 사업을 양수하는데 따른 자금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국제종합상담센터(1588-0060) 또는 인터넷상담(국세청홈페이지 '세무상담')코너를 이용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입찰가보다 낮은 하도금액 금지된다

오는 7월부터 소자본 창업자보호 위해

대기업이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중소기업에게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행위가 오는 7월부터 금지된다.

또 소자본 창업자들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안에 일정규모 이상의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에 앞서 당사자간 조정을 해 주는 조정전치주의 제도가 중장기적으로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강철규 위원장은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탐방 우리 지역의 사업소

벽산 멤브레인

CNC·멤브레인 임가공 전문업체



대표 박대영

"아직 벽산 멤브레인은 모든 것이 미흡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설립된 지 2년이 지나면서 동종 업체에 얼굴이나 내밀 정도로 열악합니다.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토대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한다는 일념 된 각오로 하자 없는 정교하면서도 완벽한 제품, 협력업체에서 인정받는 제품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축하고 있다.

또 전 임직원들에게 "본인이 살 수 없는 물건은 만들지 마라"고 수시로 주문하며 애오라지 완벽한 제품생산에 사활을 걸고 협력업체와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생존할 수 없으며 파멸의 지름길임을 강조하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품생산이 살길이라고 언제나 전 임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한편 벽산 멤브레인은 멤브레인 가공시 하자 있는 제품을 재생산해서 다시 생산할 수 있는 세심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불량률 제로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처럼 짧은 경력이지만 벽산 멤브레인은 현재 5개의 협력업체들과 우의를 돈독하며 알트란 같은 내실경영으로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박 대표는 벽산 멤브레인 설립 당시 "CEO가 현장에 있지 않은 기업은 살아 남기 힘들다"고 이야기 해준 한 지인의 말을 지금까지 잊은 적이 없다고 한다. 이러한 초심의 마음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힘든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해결하며 직원들과의 우의를 다지고 있다.

박 대표는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이 어느 회사

본인이 살 수 없는 물건은 만들지도 마라

생산하는 전 제품 불량률 제로화에 도전

내실 있는 경영을 발판으로 꿈과 희망을 갖고 미래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전 임직원들이 혼연일치 되어 맡은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위에서 인정받는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벽산 멤브레인(소흘읍 고모리 495-8 대표: 박대영)은 CNC, 멤브레인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면서 정도경영을 지향하고 있는 가구업체 2년 차 신생기업이다.

박 대표는 벽산 페인트 대리점을 15년 동안 운영해오면서 일에 대한 고집과 일을 사랑하는 열정이 남 다른 사업가다.

급속한 환경의 변화로 사정되어 가고 있는 페인트 대리점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그 동안 쌓아온 인맥을 구축으로 생산한 가구업체에 야심에 찬 도전장을 내밀었다.

박 대표는 "최선을 다해 목표에 도전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평소의 마인드를 자사 발전에 접목시키면서 타사와의 경쟁력을 구

뜻지 않게 잘되고 있으며 맡은바 일을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한 직원들이 포진하고 있어 완벽한 제품생산에 한 치의 오차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박 대표는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관내에서 견디기 힘든 섬유와 가구업이 독특한 기술력과 차별화 된 전략을 병행시켜 하루빨리 정상 궤도에 오르기를 희망"한다며 "현대인들의 삶의 질이 윤택해지며 나날이 변화되는 가구업체에서도 고객들에게 지립하고, 세련된 제품을 공급한다는 생각에 훗날 래까지 병행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기대 한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일에 대한 열정과 일을 사랑하는 박 대표의 모습에서 도전과 성공의 참다운 행복을 만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문의 031-542-5966 H.P.011-317-5966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정교하면서도 완벽한 제품, 협력업체에서 인정받는 제품만을 고집하고 있는 벽산 멤브레인 현장 모습.

산업안전사고 예방

정련기 외통문 급개방으로 인한 화상



재해발생 상황도

섬유공장에서 정련작업 후 섬유원단을 추출하기 위해 배출밸브를 개방한 상태에서 정련기 내부에 남아 있던 잔류압력에 의해 약 83°C의 가성소다와 물이 비산되면서 재해자가 화상을 입

할 수 없도록 투입구 및 배출구에 에어실린더를 이용한 LOCKING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둘째, 내부압력 및 온도 지시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내부압력, 온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설치해야 한다.

셋째, 작업지침 작성 및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해 외통문의 Locking pin 체결상태 확인 및 잔류압력 확인, 투입구와 배출구측에서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상호 신호방법 등을 포함하는 작업지침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해야 하겠다.

고 치료 중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발생원인으로는 첫째 정련기 내부압력과 온도와 연동되는 안전장치를 미설치한 것으로 내부압력, 온도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뚜껑을 개방할 수 없도록 투입구 및 배출구에 에어실린더를 이용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것이다.

둘째, 내부압력 및 온도 지시계 미설치로 작업자들이 내부압력, 온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련기 내부압력과 온도에 연동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내부압력, 온도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뚜껑을 개방

자료제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 031)826-6091